



부석사 벽화 보존 처리 현장에서 만난

한경순 교수

“처음 모습 되살리면서 세월과 대화 나눕니다”

기술 부족...무리한 시도 땀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어

전국 사찰벽화 무관심 속 방치

보호막 설치 등 노력 기울여야

벽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안거철이면 선방에 드는 스님들. 그들은 벽을 보고 있지만 실상 마음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 즉 본성을 보는 것을 깨달음이라 한다.

이와는 다른 이유로 대부분의 시간을 벽만 바라보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다. 벽화보존처리 전문가 한경순 교수(경주대 문화재학과, 41).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벽을 보고 있다. 지난 10일, 부석사 보장각(寶藏閣)에서 만난 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벽화인 부석사조사당벽화(국보 제46호)를 보고 있었다. 700년 세월을 이어온, 그러나 지금은 군데군데 칠이 벗겨지고 색이 바랜, 뿐만 아니라 관람객들의 낙서가 가득한 모습으로 우리 보호관에 둘러싸인 벽화의 보존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 교수는 지난 1년간 벽화의 실측과 손상상태를 파악하는 기초조사와 기록 작업을 실시했다. 그리고 벽화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자외선을 차단하고 실내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전시장의 환경도 개선했다. 현재는 벽화에 묻은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하는 세척작업을 두 달에 걸쳐 하고 있다. 이후 벽화의 파손을 막기 위해 떨어져 나간 부분은 더 이상

손상되지 않게 처리하고 균열이 간 부위는 고착시키는 것까지 한 교수가 하게 될 보존처리과정의 전부다.

“벽화의 보존처리는 ‘최소한의 수명연장’입니다. 흔히 보존처리라고 하면 새 그림처럼 만들거나 반영구적인 처리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벽화의 상처를 치료해 원형 그대로를 보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만 취합니다.”

작품의 수명이나 재료 자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존을 위한 인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하지만, 낙서를 지우거나 하는 과도한 보존처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의 부족한 기술로 무리하게 처리를 하다 손상되면 절대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인하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한 한 교수가 문화재 보존처리에 대해 배우게 된 것은 1989년 이탈리아로 건너가서다. 로마 국립회화문화재보존학교에서 마스터 과정을 마친 한 교수는 그곳에서 문화재 보존기술뿐 아니라 문화재를 대하는 그들의 자세까지 배우게 됐다. 미켈란젤로가 로마의 시스티나성당 천장에 그린 세계 최대의 벽화 ‘천지창조’가 9년에 걸친 복원작업 끝에 본래의 색채와 형태를 되찾는 것을 바라보던 그는 한국 사찰의 벽화를 떠올리며 ‘내 손으로 벽화들을 되살리

던 화려하고 우수한 불교벽화들이 소실됐다. 현재 남아 있는 벽화는 고려시대에 그려진 부석사조사당벽화와 무위사와 봉정사에 남아 있는 벽화 등 일부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벽화의 제작기법 자체도 단절됐고, 벽화를 단청의 일부로 치부하는 등 그 위상도 낮아졌다.

5년째 사찰 벽화의 보존처리를 하고 있는 한 교수 역시 이 점을 가장 안타까워한다. 최근 들어 정부의 문화재보호 정책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데 반해 일반인들은 여전히 사찰 벽화를 우리 민족이 낡긴 문화유산이 아니라 ‘종교화’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 교수가 조사한 전국 43개 사찰 전각의 벽화도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조금씩 훼손돼 가고 있다. “우리는 문화유산의 최종 상속자가 아니라 관리자”라고 강조하는 한 교수는 일반 사찰에서도 전문가와 상의해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보호막이나 바림막 등을 설치하는 등 조금씩이나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장엄과 예배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인 탕화와 달리 인간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 그려진 벽화는 곧 인간과 함께 호흡하는 ‘따뜻한 예술작품’이다. 때문에 사찰벽화를 보존처리하는 이들이야말로 벽을 통해 세월과 대화를 나누는 ‘장인’이자 ‘학자’이고 ‘예술가’이자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3월 초순, 현재 진행 중인 부석사조사당 벽화의 보존처리가 끝나면 한 교수는 무위사극락전 아미타후불벽화(보물 제1313호)의 보존처리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몇 달 씩 이어지는 현장 작업이 벽화라고는 하지만 그에게서 문화재 보존처리기술을 배우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어엿한 ‘전문가’로 성장할 때 까지 그의 현장생활은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영주=여수경 기자 snoopy@buddhopia.com 사진 = 박재완 기자 jypark@buddhopia.com

◇ ‘내 손으로 벽화의 원모습을 되살리겠다’는 서원을 세운 한경순 교수. 우리나라 유일의 벽화보존처리 전문가인 한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벽화인 부석사 조사당 벽화의 보존처리를 하고 있다.



◇ 한경순 교수(왼쪽에서 두번째)와 함께 부석사조사당벽화(국보 제46호) 보존처리작업을 하고 있는 대학원생 이희수(29), 김호정(25), 이태종(29) 씨.(왼쪽부터) “문화재의 아픈 곳을 직접 고쳐주게 된 것이 자랑스럽고 뿌듯하다”는 이들은 “순간적인 실수로 국보에 손상을 입히지 않음에 매우 긴장하게 된다”고 입을 모은다.